

신안 주민들, 하천·갯벌 살리기 나섰다

신안군 도초면 한밭마을 주민들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도초면 한밭마을 50여 가구 주민들은 가정에서 설치지와 세탁, 청소 등에 합성세제 대신 유용미생물을 활용하고 3개월 동안 수질개선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은 39%로 전국 94%, 전남 8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수집역원이 소모되는 처리시설을 모든 섬에 설치할 수 없기에 일부 생활하수가 갯벌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은 자연적인 하천 정화를 위한 습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끝에 지난 2019년 도초도 한밭마을 입구에 친환경 생태습지 3,150㎡를 시범 조성했다.

마을의 하수는 창포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있는 6개의 작은 생태습지를 통과해 하천으로 방류돼 하수를 정화하는 시스템이다.

신안군은 유용미생물 희석액을 이용한 도량살리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효모와 유산균, 고초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로 수질개선,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

도초도 하천에는 모두 4개의 유용미생물 방류통이 설치돼 매주 약 1.6톤 가량 방류되고 있다.

신안군은 수질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초도의 하천과 습지, 도량 등 30여 곳에서 매달 수질검



신안군 도초면 한밭마을 주민들이 합성세제는 줄이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해 하천과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유용미생물 활용 수질개선 시범사업 추진

도서지역 생태 습지조성·주민 교육 확대

사를 진행중이다.

검사결과 한밭마을 상류인 한밭제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가 1.0으로 1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을을 지나면서 4등급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하천으로 계속 이어지는 등 한밭습지에서 일부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습지가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오수를 줄이기 위해 합성세제는 줄이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해 하천과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동참했다.

군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유용미생물 희석액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기록지를 배포해 매일 설치지 등 유용미생물 사용

을 공유하고 있다.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 장단점과 효과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주민들의 기대감과 자부심이 매우 높아 마을 도량을 통과하는 하수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질 등 환경 개선효과와 과정과 교훈 등을 매뉴얼화하고, 전체 도서지역으로 생태 습지조성과 주민교육을 확대해 명실공히 세계유산 갯벌을 생활 속에서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무안군 사회단체, 국토부 항의 집회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즉각 철회 요구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군 번영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최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상경 항의 집회를 가졌다.

무안군 사회단체는 "2020년 1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을 순박 뒤집듯 무효화시키는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결정에 군 공항 이전 추진사항까지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광주전북비행장을 민간공항과 함께 무안군에 이전하려는 기만 술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차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답

변이 없어 군민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상경 집회를 했다"고 밝혔다.

박일상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장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군 공항 추진 사항을 언급한 것은 월권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KTX 경유와 활주로 연장사업 등 2조 6,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주관 국책사업들이 쓸모가 없어져 예산낭비이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미루지 말고 2021년까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군 번영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최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항의 집회를 실시했다. /무안군 제공

목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가속도

사회적 협동조합 문열고 활성화 사업 추진

목포시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서산동 보리마당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이 찾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는 최근 주민 관리 주체인 '보리마당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현판식을 개최했다.

협동조합은 컨설팅, 의무교육, 창립총회, 국토교통부 인가승인, 법인등기 등을 완료하고 해안로 105번길 4에 사무실을 마련해 임대주택, 마을식당, 수산물 건정사업,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대상지내 유희자원, 경관자원 등을 활용해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 경관길 조성 등 하드웨어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올해 7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 사업계획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마중물사업에 180억원을, 공기업 및 부처협업사업에 62억 7,000만원을 각각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서산동 보리마당 공영주차장을 올해 준공해 개방했으며, 현재 보리마당로

조성 공사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구생어린이집터 주차장 조성공공편의시설 조성 공사를 착공했다.

앞으로 시는 ▲집수리 지원 ▲보리인덕 조성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기업 및 부처협업사업으로 광장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한 후 임대주택으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서산동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즐길거리와 생각할 거리가 풍부한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해 보리마당이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영암, 추경 7,109억원 확정

영암군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109억 원이 최근 군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6,677억원 대비 432억 원(6.46%) 증가된 규모로 소상공인 자체 긴급 추가 지원, 한파 및 이상저온 피해농작물 복구비, 제2차 국가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와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증점적으로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인, 전세버스, 택시 기사 등에 지원사업 35억 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28억 원, 한파 및 이상저온,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40억 원, 농어업인 지원사업 123억 원 등의 예산을 긴급편성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미술 직거래시장 강진아트페어 개막

작품 150여점 선배

강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작가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미술 직거래시장 '2021 제2회 강진아트페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번째 개최하는 강진아트페어는 지역작가 43명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도자기, 가죽공예, 민화 등 다양한 장르 1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작가와 소비자 간 직접 대면이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 직거래 미술 시장이다.

지난해 제1회 아트페어에서는 94점의 작품을 판매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강진아트페어

에는 추석 명절을 겨냥한 청자 생활자기 세트 등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청자 생활자기는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민에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와 판매를 병행해 지역작가들의 소득까지 올릴 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승욱 군수는 "제2회 강진아트페어로 강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준 작가들과 주민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맞이하는 가을은 아트페어에서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현경면 지사협, 추석 나눔키트 전달

무안군 현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가정 24가구에 추석맞이 나눔키트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과 만나기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가정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의체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을 준수한 가운데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직접 식료품 키트와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박종구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외로운 명절을 보내게될 소외가정에 정성이 담긴 건강식을 드시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정 면장은 "이번 위문이 온정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강진경찰, 군의회서 치안설명회

강진경찰서는 최근 강진군의회 의회실에서 위생식 의장과 군의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른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한 강진군의회와 관심과 협력을 위해 치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강진 관내 국도 23호선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과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pre-cas)

을 통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위생식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경찰서장은 "강진경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업할 것이며 군의회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 암태면 기동 스마트경로당 신축

신안군은 최근 암태면 삼거리 기동마을에 전국최초로 AI를 접목한 통합플랫폼 형태의 스마트경로당을 신축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기존경로당의 건물 노후화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지상 1층 규모로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2개와 주차장을 갖춘 시설로 준공했다.

특히 신안군과 KT가 매칭사업을 연계하고 사람의 열매와 신안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해 경로당에 기가네트워크인 프라와 AI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정보 격차 해소와 교육, 문화, 여가,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박우량 군수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